

목포시티투어 노선 새단장 새출발

코스 명칭 변경·노선 일부 개편
정체성과 감성 담은 맞춤형 투어
문화·밤바다 감성, 주·야간 운행

목포시가 '목포시티투어'의 코스 명칭과 운영 노선을 일부 개편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개편은 목포만의 정체성과 감성을 반영해 더욱 흥미롭고 차별화된 맞춤형 투어 상품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의 '주간 시티투어'는 '목포광 시티투어'로, '야경 시티투어'는 '별빛 물결 시티투어'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목포광'은 '목포와 함께'라는 의미를 담아 친근하고 따뜻한 정서를 부각하고, '별빛 물결'은 목포 바다의 야경과 낭만적인 감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시티투어 브랜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1코스인 '목포광 시티투어'는 KTX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에서 시작해 ▲영화 1987 촬영지인 연희네 슈퍼 ▲드라마 호텔델루나 촬영지인 근대역사관 ▲스릴 넘치는 바다 위 스카이워크 ▲세계적인 준대성전으로 인정받은 카톨릭성지 등 목



목포시가 시티투어의 코스 명칭과 운영 노선을 일부 개편해 새롭게 운영한다. 목포 시티투어 버스.

포만의 역사와 문화, 체험 요소를 아우른 이색적인 코스로 운영된다. 제2코스 '별빛 물결 시티투어'는 목포대교, 춤추는 바다분수 등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낭만적인 밤바다와 감성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코스가 될 전망이다. 시티투어 예약은 목포시 문화관광 누리집 또는 전화(061-245-1814)를 통해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성인 6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은 3000원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시티투어는 목포의 문화와 감성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스 보완과 콘텐츠 강화를 통해 목포 관광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증도서 7~8일 이틀간 섬 뱀뎡이 축제

비빔밥 만들기·시식회에 공연도

신안군은 깨끗한 바다와 광활한 갯벌, 천혜의 모래해변이 어우러진 슬로시티 증도에서 7일부터 이틀간 '제15회 섬 뱀뎡이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오뉴월 뱀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6월은 뱀뎡이의 제철이다. 지방이 풍부하고 삶이 부드러워 회, 무침,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뱀뎡이가 가진 칼슘·철분·불포화지방산은 성인병 예방과 골다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축제는 증도 우전마을 설레미체험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뱀뎡이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회와 지역 출신 유명 가수 공연 등이 준비됐다. 행사 기간에는 돌계 낚시, 카누, 오리배 체험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남

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오감 만족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가 열리는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 지역(2007년 12월)이다. 국내 최초의 갯벌도립공원(2012년 8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랍사르습지 등록 지역 등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청정 생태관광지이기도 하다. 인근에는 소금박물관, 장뚝어다리, 한반도 해상 숲 등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볼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뱀뎡이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실속형 축제로, 제철 수산물의 맛과 신안군만의 생태자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미식가들에게 만족스러운 여름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목포경찰이 지난 29일 호남권통일 플러스센터 2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홍보물품 배부 등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정폭력·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사례와 최신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지원 요청 등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탈북민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범죄와 법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는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 등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치안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관계자들이 해제면 도리포항에서 감성돔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어족자원 회복”

낙지·주꾸미·오징어 등 추가 방류
무안군은 최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

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250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 마리, 대하 종자 250만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낙지 7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군은 주꾸미(5.11~8.31)와 낙지(6.21~7.20)의 금어기 기간을 활용해 산란·서식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쓰리Go? 먹Go 자Go 즐기Go’

체류 관광객 최대10만원 지원

해남문화관광재단이 6월을 맞아 여름 휴가철 해남 방문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시작한다. '해남쓰리Go'는 해남을 방문해 1박 이상 체류하는 개별관광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즌별 참여자를 모집해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1박 2일 이상 해남에 머무르는 최소 2인 이상의 관외 관광객이며, 체류기간 소비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금액 상위 10팀에게는 농수산물 직영 소품인 '해남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상당 포인트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봄 시즌 '해남쓰리Go'에는 총 60팀이 참여했으며 4월 중순 조기 마감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여름 시즌 신청은 방문일 최소 3일 전까지 해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